

▶ 탐사보도 '부실 투성이' 전남 산업단지 개발 ▶ 관련기사 2·3면

'꽂지돈' 대출... 2000억중 340억 뜯겨

3%금리 10% 치솟아
서울 금융사만 배불러
선이자·수수료 떠안은
산단개발 지자체는 봉



19일 토지보상을 거의 끝내고 공사가 한창인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사전심사가 원칙인 투융자심사를 최근에는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에 앞다퉈 나서면서 서울지역 증권사, 부동산건설업체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증권사 등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을 연금,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조달한 뒤 수수료, 자료료 등을 먼저 챙기고 고금리로 시·군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3~4%의 금리는 10%대까지 치솟아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은 작·간접적으로 시·군이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 재주는 '지자체'가 부리고, 수익은 서울 소재 금융기관과 업체 등이 독식하는 셈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같은 지자체의 산단 개발방식이 결국 혈세 및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고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나주시, 함평군 등에 따르면 나주시와 함평군은 모두 B증권으로부터 2000억원과 550억원을 대출받아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와 동함평산업단지의 개발 자금을 마련했다. B증권은 시가총액 1700억원 정도의 증권 증권사로, 나주시와 함평에 투자된 2550억원은 연금이나 시중은행 등이 맡긴 자금이다.

B증권은 페이퍼컴퍼니인 금융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애초 대출금에 6% 이상의 2년치 선이자를 붙여 인수하는 방식으로 빌려왔다. B증권은 인수한 기업어음을 연재된 되팔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 어음을 인수할 때까지, 즉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자를 내야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SPC, 투자자문회사 등도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으며, 지자체는 고금리와 분양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구조다.

나주시가 2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자료료, 수수료 명목으로 342억원을 뜯기고 실제로 받은 돈은

1658억원이었다. 문제는 자금을 빌린 지 2년이 다 돼 오는 5월부터 2000억원에 대한 6.5%의 이자를 다시 물어야 하며, 사업이 지체되면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함평군도 550억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금융수수료, 자료수수료 등 93억원을 미리 주고 457억원만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매일 10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할 판이다. 분양 책임이 가동되고 있고, 투자자문회사는 군으로부터 분양수수료까지 매달 수천만원씩 받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맡은 SPC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 난이도와 관계없이 79~85%에 이르는 낙찰률에 공사를 맡기고 있다. 시공사가 산단 조성을 맡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투자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 같은 예산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관계자는 "금융알선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까지 참여하니 수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일선 시중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새정치 담을 큰 그릇 만들어야"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2강 ▶ 관련기사 2면

박지원 前원내대표 '호남정치와 민주당의 미래' "노원병 야권 단일화, 안철수 안고 가야"



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고 민주당이 안 전 교수를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야권분열의 씨앗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와서 새 정치 혁신을 하자"고 제안한 뒤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야권 연합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호남에서 기초·광역의원 및 단체장, 국회의원 거의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확실한 개혁공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민중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환골탈태를 통해 호남의 민심을 얻고 안철수 전 교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를 강사로 나서 "민주당은 흔들렸던 중도개혁 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성찰과 혁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

박 전 원내대표는 당내 친노(親盧) 세력을 겨냥해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로 '멘붕'상태인데도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계파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성찰과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호남은 물론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절박감으로 반드시 혁신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전 교수의 향후 행보와 관련, "안철수 전 교수로 대표되는 국민의 새 정치를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 노원 병 보결선

새누리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대선공약 실천... 민주당도 무공천론 확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흐름이 점차 구체화돼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새누리당은 19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합당에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도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무공천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13일 혁신

방안 발표에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혁신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무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파, 경기 고양시파, 경남 양산시파 등 3곳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택시기본요금 29일부터 2800원

광주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9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리·시간요금은 150m·36초당 100원에서

145m·35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모범·대형택시는 현행 기본요금인 32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정작업에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정 완료시까지 환산요금 조건표를 차내에 게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상된 요금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도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거리·시간요금은 146m·35초당 100원씩 증가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교통사고를 확 줄이기 위하여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전조등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수단이며 안전운전을 위한 팁이자 광주시민의 선진교통 매너입니다.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되며,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이 된다.
*주간전조등이란? 주간시간(Daytime)대 운전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
- 그럼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율 28%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 1조2,500억원 감소 (09 교통안전공단)
- 전조등은 언제 켜나요?**
1년중 맑은 날 평균 97.3일 (기상청 통계 최근 10년)
전조등은 비오는날, 눈오는날, 안개낀날, 흐린날, 일출전이나 일몰시 등에는 반드시 켜고, 날씨가 맑아도 관개없이 1년 365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우리나라 운전자 일몰시간대에 약 60%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
- 연료비는 어느정도? 비용대비 안전성 확보**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 주행시 0.1ℓ (약 200원) 소요
- 해외 선진국은?**
미국은 1960초 텍사스 주부터 주간 전조등 사용
* 180여개 사업용 운수업체 대상 현황 분석결과 38% 감소
* 캐나다 주정부 소유차 4,000여대 대상 연구결과 25%사고 감소
* 전조등 의무화 국가: 핀란드(1972), 스웨덴(1977), 노르웨이(1985) 덴마크(1990) 등
*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의무화 검토중